

# 기후변화협약(UNFCCC)

## 배경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범지구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이다.
-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017년 5월 기준 19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6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다.

## 한국의 주요활동

- 유엔기후변화협약 **COP18** 참여(카타르, 2012.11)
  -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인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0** 참여(페루, 2014.12)
  - 수석대표 기조연설(고위급회의), 기후재원 장관대화(고위급회의) 신 기후체제 장관대화(고위급회의) 발언
-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1** 참여(파리, 2015.11)
  - 정상행사 VIP 연설, 양자면담(UN사무총장)
-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2** 참여(모로코, 2016.12)
  - EIG5대 관심의제 합의

## 주요이슈

-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38개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2016년 12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irc}\text{C}$ 에서  $1.5^{\circ}\text{C}$ 이하로 제한하였다.
-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채택을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 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 ②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 ③ 활동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 ⑤ 시장메커니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 마련 등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5년 단위 이행실적을 평가해야하며, 모든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5년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번 상향된 목표를 제시해야함과 더불어 2023년부터는 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UN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체제 지향
  - 2020년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강도 높은 검증 대비 방안 마련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이행 및 달성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재 관련 법률 검토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 이전 요구
  - 녹색기후기금(GCF) 독립 재원 조성을 위한 외교활동 강화 및 기후변화 ODA 사업 확대·발굴 방안 수립
-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 주시
  -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전략 및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